

통합의대·남해안개발청 설립 등 건의

김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SOC 증액 필요성 강조 민주 진성준 정책위의장·안도걸·서미화 의원 협조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가 20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안도걸·서미화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갖고 통합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 해결과 2025년 예산의 국회 증액 대상 핵심 사업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여야 정책위의장, 상임위원장과 등의 릴레이 면담 일주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현안 해결과 예산 추가 확보에 총력을 펼쳤다.

김 지사는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 지난 15일 목포대와 순천대가 지역 상생·화합과 미래 발전을 위해 통합에 합의한 것을 설명하고 전남도가 오는 22일 정부에 '통합의대'를 추천하면 정부에서 2025년도 국립의대 신설 및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또한 국토 남해안축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중심이 되고 전남·경남·부산이 함께 참여하는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과 근거법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조기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명백한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온전한 명예 회복

을 위한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 중앙위원회 조사 인력 확대,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 실시를 건의했다.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비교우위 산업인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성

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방에 기업 이전과 인재 유치를 위해 기업 상속 적용 대상·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특구 내 근로자 소득세 감면 확대의 조속한 시행도 요청했다.

무엇보다 김 지사는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SOC를 계획한 기간에 완공하기 위해 1조원이

상의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며 "2025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OC 증액이 필요한 주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천300억원(총사업비 2조5천100억원),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결도로 사업비 539억원(총사업비 5천794억원),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사업비 407억원(총사업비 6천244억원) 등 17개 사업이다. /김재정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주요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 병원급 의료기관 22곳 스프링클러 전무”

이명노 시의원 “2026년까지 의무 설치에도 올 예산 전액 불용”

광주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대형 화재 사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20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소방 시설법 개정으로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됐지만 30층 이상을 갖춘 광주의 병원급 의료기관 17곳 중 22곳엔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병원들은 2023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함에도 광주시는 올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 1천700만원을 전액 불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해 7월 서구 치과 사재폭발물 테러나 지난해 12월 요양병원 세탁실 화재와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6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광주시는 올해 의료기관이 40%를 부담하면 국비 30%·시비 15%·구비 15%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 이 전무했다.

이에 대해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환자 안전과 건물주와의 협의 문제로 의료기관의 수요가 없었다”며 “내년에는 3건의 수요가 예상돼 시의회에 본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도, 데이터센터 예산 고작 1천만원”

최선국 도의원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예산·전략 없어”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은 전략산업국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관련 예산인 고작 1천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활동 관련 예산은 책자 제작 500만원, 업무 추진 여비 500만원 등 총 1천500만원 뿐이다. 이마저도 올해 예산에 없던 활동 여비가 늘어난 결과다.

전남도는 오는 2025년까지 해남 25기, 광양-순천 30기, 영암 20기, 함평 20기, 장성 5기 등 총 100기의 데이터센터 유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데이터센터 건립비용은 1기당 최소 3천억원에서 1조



원까지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최선국 의원은 “책자 하나 들고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전남도가 데이터센터 100기 유치를 목표로 하면서도 차별화된 전략이나 실질적인 지원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 국비 확보,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형태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전남도는 예산도, 정책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문화예술상 축소...문학의 도시 위상 역행”

홍기월 시의원 “예산 66% 불용...행·재정적 지원 확대해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문학의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광주시가 오히려 문화예술상 문학 부문 예산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은 20일 광주시 문화체육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광주가 문학의 도시로 대표되고 있는 것과 달리, 문화예술상 문학 부문이 축

소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학을 더욱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광주시 문화예술상 조례’ 제3조에 따라 문학·한국화·서양화·국악 부문에 대한 문화예술상을 시상하고 있다.

문학 부문은 경우 박용철·김현승·정



소과 문학상을 시상한다.

하지만 광주시는 행사 규모 축소를 이유로 당초 예산 1천500만원 중 33.3%인 5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66.7%는 불용 처리했다.

홍기월 의원은 “광주는 문학의 고장으로 불리며 노벨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문학의 송고함이 깃든 도시”라며

“문학 관련 행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는 못할 망정 오히려 축소하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우매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또 “문학상을 기존보다 확대해 더 많은 문인을 배출하고 문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광주 문학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자치법규를 개정해 시상 인원 등 수상자 범위를 넓히는 법·제도적 개선 작업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선강 기자

완도수목원,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 지정

전남도완도수목원은 20일 “산림청으로부터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 제2024-03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희귀·특산식물의 수집·증식·보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림청이 지정한다.

완도수목원은 산림생명자원관리

관으로서 희귀식물 90종, 특산식물 24종을 포함한 총 104종의 식물자원을 보존하고 있으며 관리 인력 등 지정 조건을 충족해 이번에 지정됐다.

양시원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GWANGJU NAMGU 남구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내 집앞, 내 점포 눈 치우기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눈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집, 점포 앞 도로, 지붕에 내린 눈을 치우고, 집 주변 빙판길에 모래나 제설제를 뿌려 안전 사고에 대비한다.
- 노후가옥은 지붕, 벽, 계랑기, 수도관 등을 미리 점검, 수리한다.